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박성진 | 최윤영 | 전무경 | 김성희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개요

-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는 전국 외식업체 사업주 및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와 사업 실적, 영업사항, 식재료 구매실태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식업체의 경영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승인통계임.
- 모집단은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으로 등록된 명부를 활용하였으며, 총화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음. 목표 표본 수는 3,000개 사업체로 설정하였으며,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3,196개 사업체로부터 응답 결과를 회수함.
- 조사 완료된 외식업체의 업종별 비중은 한식이 35.9%를 차지하는 등 일반 음식점이 과반 이상인 51.9%이며, 비알코올 음료점업(13.0%)등과 같은 일반 음식점이 외는 48.1%를 점유함.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 외식업체 사업주의 평균 연령은 52.9세이며, 이중 일반 음식점은 55.1세, 일반 음식점 이외는 50.4세로 일반 음식점 사업주의 평균 연령이 5세 정도 더 많음.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 음식점업이 58.2세로 가장 높으며,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46.0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의 외식사업 종사 기간은 평균 12.7년이며, 중식 음식점의 경우 16.3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파악
 - 현 업종 종사 기간은 9.0년으로 10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업종별로 중식 음식점이 11.8년으로 가장 길고,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은 5.6년으로 가장 짧은 기간
 - 사업주 중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평균 20.8%이며, 조리사 자격증 보유 사업주 비중은 중식 음식점 42.0%, 일식 36.0%, 서양식 음식점업 35.9%의 순서

- 외식업체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24년 기준 임차 비중이 90.4%에 달하고 있으며,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4년으로 조사됨. 사업장 임대 형태는 보증금+월세가 94.0%, 보증금+수수료는 1.7%이며, 임차보증금은 평균 3,255만 원으로 파악됨.

2024년 외식업체 조사 응답 비중 및 사업주의 연령, 종사 기간, 조리사 자격증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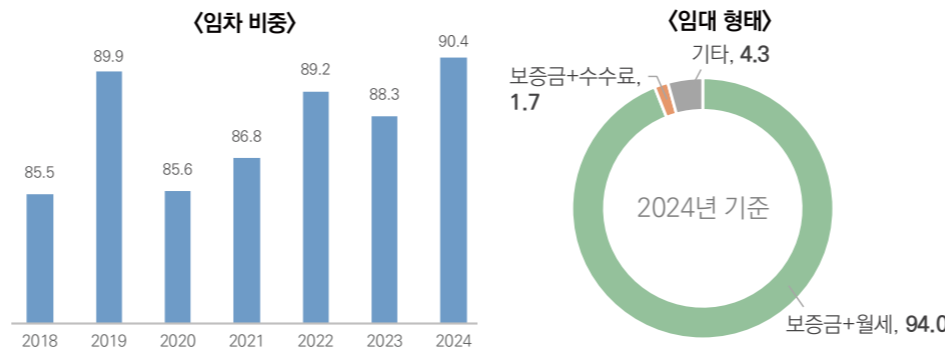
단위: 세, 년, %

구분	조사 응답 비중	사업주 평균 연령	외식사업 평균 종사기간	현 업종 평균 종사기간	사업주 조리사 자격증 보유
전체 평균	100.0	52.9	12.7	9.0	20.8
일반 음식점	51.9	55.1	14.8	10.3	22.0
한식 음식점업	35.9	56.2	15.3	10.7	18.7
중식 음식점업	6.3	53.9	16.3	11.8	42.0
일식 음식점업	4.4	49.9	11.3	7.6	36.0
서양식 음식점업	2.9	46.7	10.5	6.8	35.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3	46.3	9.0	5.6	12.5
일반 음식점 이외	48.1	50.4	10.5	7.6	19.5
기관 구내식당업	1.0	55.6	13.5	9.6	33.7
출장·이동 음식점업	1.3	58.2	14.7	10.0	9.7
제과점	4.6	48.9	11.8	8.7	34.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3	48.6	9.7	7.0	17.1
치킨 전문점	5.1	52.2	12.2	9.0	12.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6.4	52.5	11.4	7.9	13.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7	50.2	8.6	6.9	17.3
주점업	8.7	54.3	11.4	8.2	16.6
비알코올 음료점업	13.0	46.0	8.5	6.3	22.7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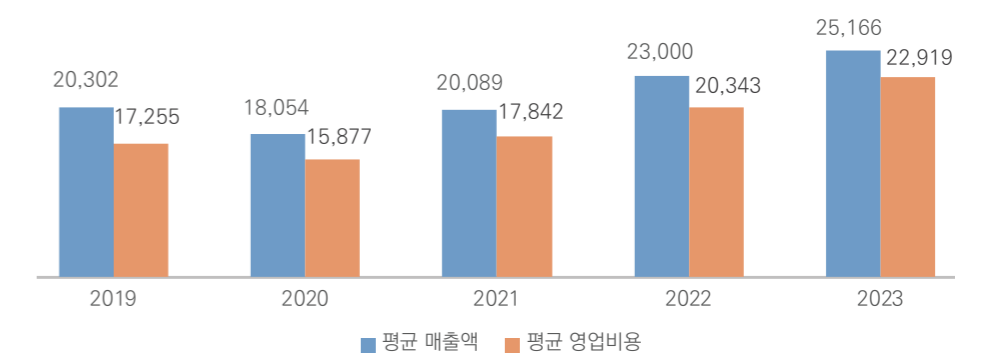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외식업체의 경영실적

-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23년 기준 2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은 2022년(14.5%) 대비 크게 둔화된 양상임.
- 외식업체의 평균 영업비용도 2020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3년 평균 영업비용은 2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여 평균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음.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 및 영업 비용

단위:만 원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따라서, 외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2023년 2,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로 크게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률도 8.9%로 전년 대비 2.7%p 감소함. 외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2021~2022년간 코로나19의 충격을 조금씩 회복하였으나 2023년에 매출액 증가가 둔화되고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외식업체의 경영상황이 이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외식업체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단위: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이익	3,046	2,177	2,247	2,657	2,247
영업이익률	15.0	12.1	11.2	11.6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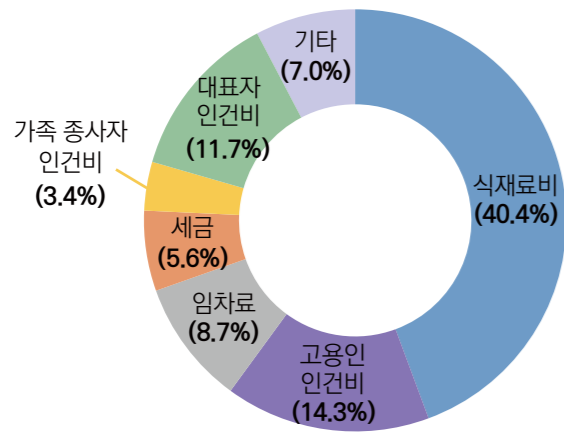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외식업체의 영업비용 증가는 최근의 급격한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물가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임. 외식업체의 영업비용 중에서는 식재료비가 2023년 기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인건비 29.4%(대표자 인건비 11.7%, 고용인 인건비 14.3%, 가족 종사자 인건비 3.4%), 임차료 8.7%, 세금 5.6% 등의 순임.

2023년 기준 외식업체의 영업비용 항목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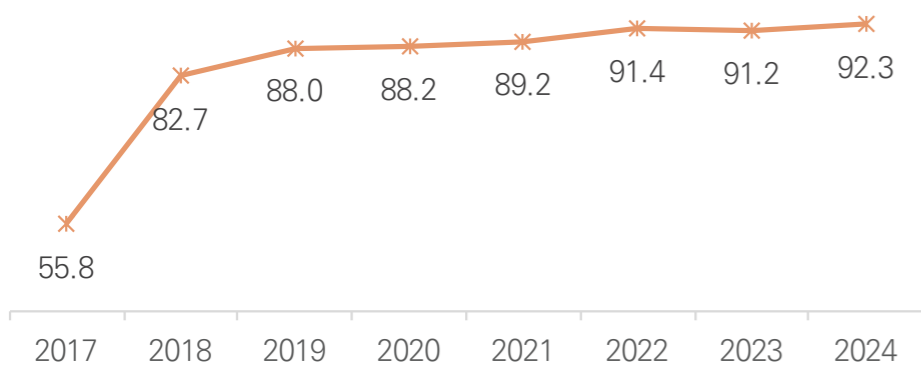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적용 현황

-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2017년 55.8%에서 2018년 82.7%로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2022년부터 90% 이상을 넘어섬. 2024년 기준 92.3%로 대부분의 외식업체에서 사용 중이며, 일반 음식점이 93.6%로 일반 음식점 이외의 90.9%보다 높음.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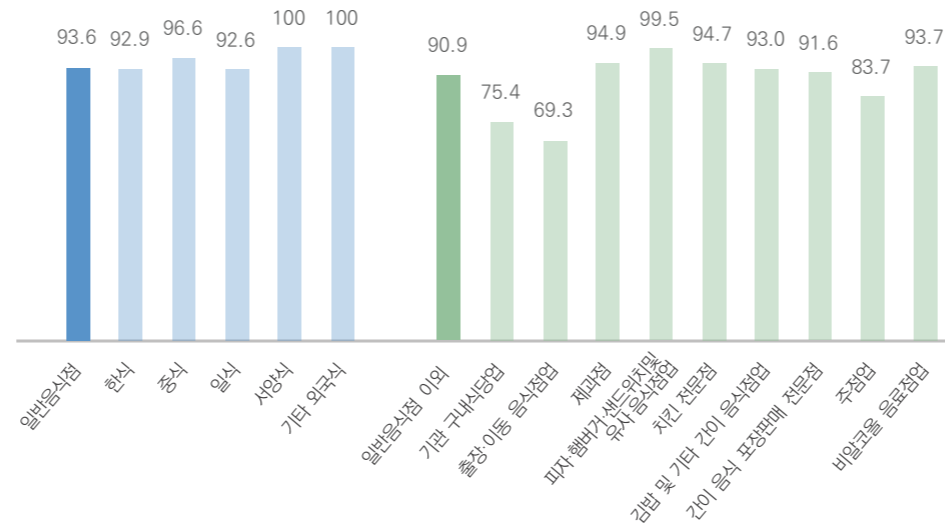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일반 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과 기타 외국식이 100% 포스단말기를 사용, 한식 음식점업과 일식 음식점업 사용 비중은 각각 92.9%와 92.6%
- 일반 음식점 이외의 업종 가운데,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9.5%)의 사용 비중이 높은 반면 출장·이동 음식점업은 69.3%

외식업체 업종별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

단위: %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외식업체 중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중은 2017년 0.6%에서 2024년 12.9%로 12.3%p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업종별로는 2024년 기준 일반 음식점(9.4%)보다 일반 음식점 이외(16.6%) 업종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높은 편임.
 - 일반 음식점 가운데, 일식 음식점업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18.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은 29.6%이나 한식 음식점업은 7.7% 수준
 - 일반 음식점 이외 업종 중에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 30.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7.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2.7%
- 외식업체에서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 유형은 2024년 기준 키오스크가 54.8%로 과반 정도를 차지하며, 고객 휴대폰 35.6%, 태블릿PC 9.2%임. 2023년과 비교하여 키오스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객 휴대폰과 태블릿PC는 증가함.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 및 무인 주문기 유형

단위: %

구분	사용 비중	무인 주문기 유형			
		키오스크	고객 휴대폰	태블릿 PC	기타
2017년 평균	0.6				
2018년 평균	0.9				
2019년 평균	1.5				
2020년 평균	3.1				
2021년 평균	4.5				
2022년 평균	6.1	70.1	26.3	3.4	0.3
2023년 평균	7.8	67.0	28.3	4.0	0.7

구분	사용 비중	무인 주문기 유형			
		키오스크	고객 휴대폰	태블릿 PC	기타
2024년 평균	12.9	54.8	35.6	9.2	0.3
일반음식점	9.4	33.1	45.8	21.1	0.0
한식 음식점업	7.7	29.8	49.0	21.1	0.0
중식 음식점업	14.3	29.2	56.9	13.9	0.0
일식 음식점업	18.3	30.9	37.8	31.3	0.0
서양식 음식점업	15.2	57.2	27.5	15.3	0.0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9.6	56.5	16.6	26.9	0.0
일반 음식점 이외	16.6	67.5	29.7	2.4	0.5
기관 구내식당업	7.8	100.0	0.0	0.0	0.0
출장·이동 음식점업	15.1	0.0	100.0	0.0	0.0
제과점	4.5	54.7	45.3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7.9	65.1	32.4	2.6	0.0
치킨 전문점	7.8	74.9	12.1	2.3	10.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2.7	33.8	66.2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전문점	13.7	66.0	34.0	0.0	0.0
주점업	2.9	44.3	19.4	36.3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30.2	77.5	21.9	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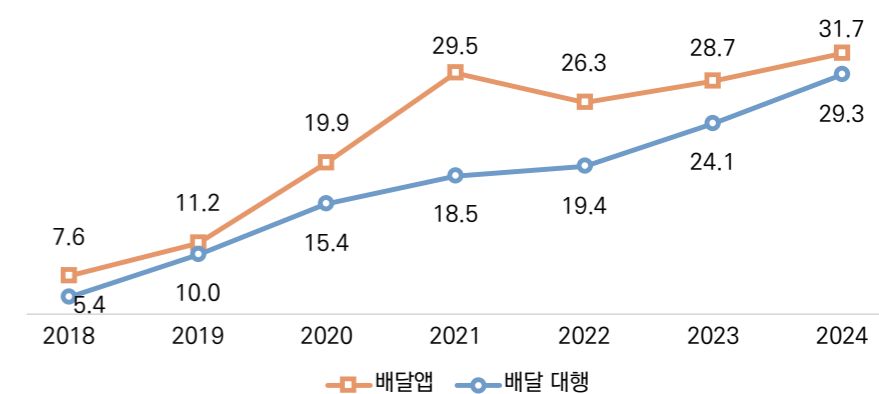
주: 무인 주문기 유형은 2022년부터 조사되었음.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중은 2018년 7.6%에서 2020년 19.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코로나19 상황인 2021년 29.5%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워드 코로나로 전환된 2022년에는 26.3%로 소폭 감소함.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4년 기준 31.7%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함.
-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 사용 비중은 2018년 5.4%에서 2023년 24.1%, 2024년 29.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증가하였다가 최근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된 배달앱 사용 비중과는 차이가 있음.

외식업체의 배달앱 및 배달 대행 사용 비중

단위: %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외식업체 배달앱 사용 월 평균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코로나19 상황 당시 상생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2021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24년에는 지난해 대비 22.7% 감소한 30만 3천 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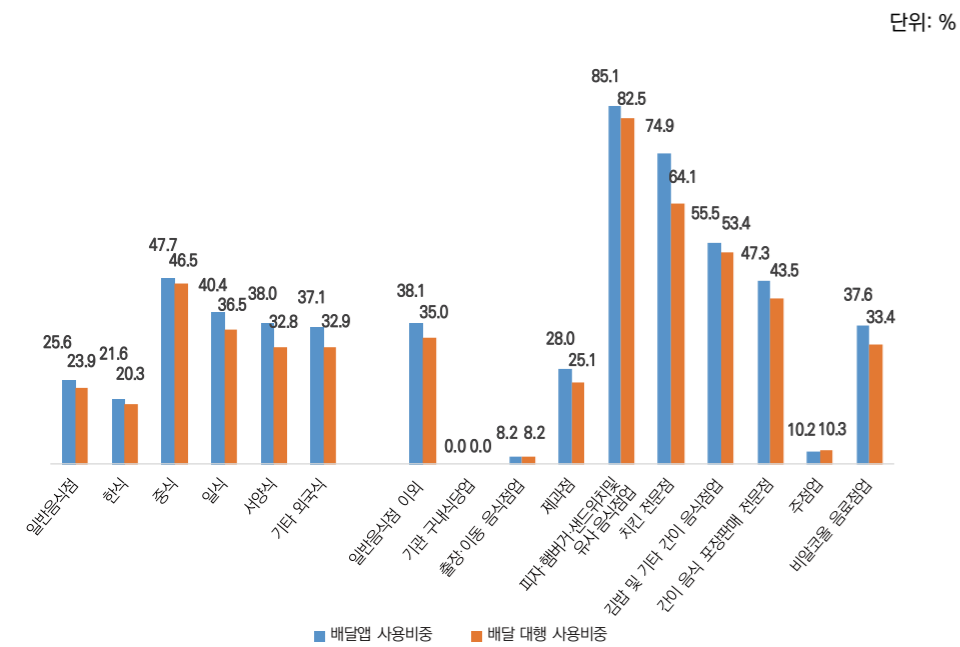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용

단위: 천 원/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월 사용 비용	231	247	318	360	272	368	392	303

● 배달앱(배달 대행) 사용 업종은 2024년 기준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이 85.1%(82.5%), 치킨 전문점 74.9%(64.1%), 김밥 및 간이 음식점업 55.5%(53.4%)의 순서로 높음.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이 47.7%(46.5%)로 가장 높고, 한식은 21.6%(20.3%)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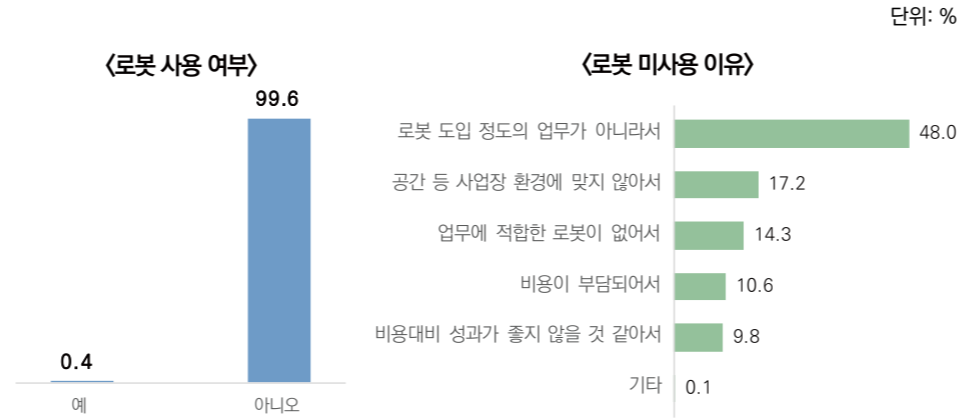
외식업체 업종별 배달앱 및 배달 대행 사용 비중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외식업체 중 로봇을 도입한 업체 비중은 0.4%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도입 의향에 대해서도 94.0%가 도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외식업체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외식업체에서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48.0%)',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17.2%)',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식업체 로봇 사용 여부 및 미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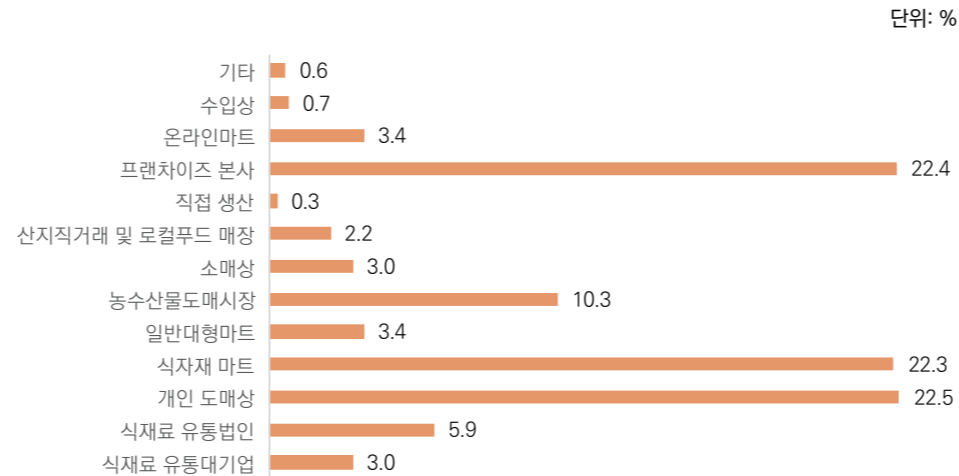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외식업체 식재료 구입 실태

● 외식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식재료의 구입처는 개인 도매상(22.5%), 프랜차이즈 본사 공급(22.4%), 식자재 마트(22.3%), 농수산물 도매시장(10.3%), 식재료 유통법인(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식업체 취급 식재료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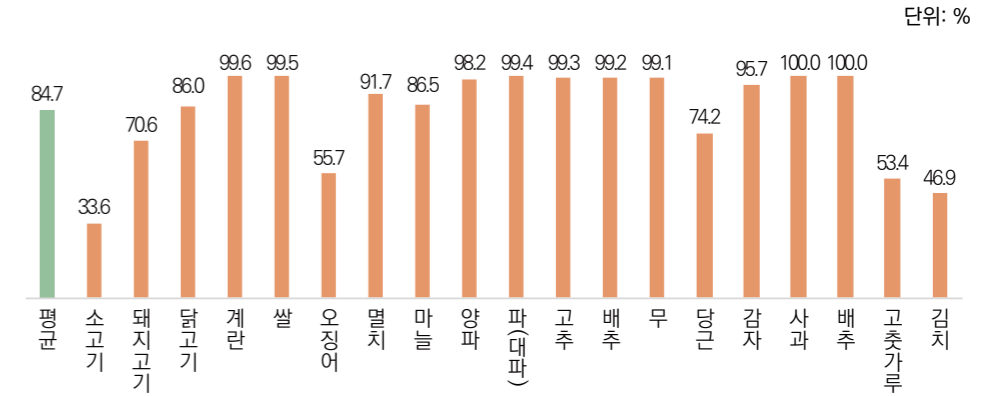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물량 중 국산 비중은 평균 84.7%임. 품목별로 국산 구입 비중을 살펴보면, 사과와 배, 계란, 배추, 무, 쌀, 풋고추, 홍고추, 파(대파), 감자, 양파, 멸치는 92% 이상이며, 닭고기와 마늘은 86~87%, 당근과 돼지고기는 71~74%, 오징어와 고춧가루는 53~56%임.

- 김치(46.9%)와 소고기(33.6%)는 국산 구입 비중이 낮은 품목

외식업체의 취급 식재료 중 국내산 비중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외식업체는 식재료 관련 가격 정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얻는 비중이 31.6%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지인(동종업체) 23.8%, 인터넷 사이트 검색 21.0%, 직접 현장 조사 14.4% 등의 순임.

- 이 외에 협회 등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은 3.5%, 정부 기관·공사정보 3.3%,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는 1.9%

외식업체의 식재료 가격정보 획득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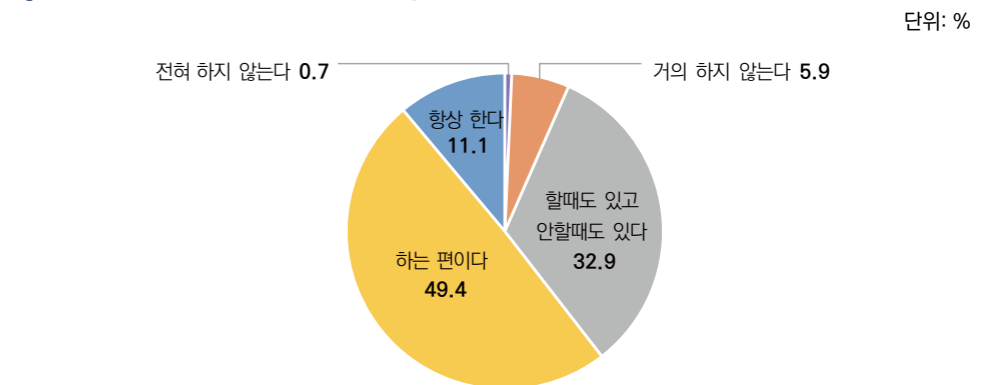
구분	지인 (동종업체)	인터넷 검색	정부기관 공사정보	aT 농산물 유통정보 (KAMIS)	협회 등	직접 현장조사	식재료 공급업체	기타	합계
비중	23.8	21.0	3.3	1.9	3.5	14.4	31.6	0.5	100.0

주: 복수 응답 기준을 합계가 100%가 되도록 산정한 값임.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60.5%(하는 편이다 49.4%, 항상 한다 11.1%)로 하지 않는 업체 6.6%(거의 하지 않는다 5.9%, 전혀 하지 않는다 0.7%)에 비해 크게 높음.

외식업체의 식재료 원산지 확인 여부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외식업체의 애로사항 및 의향

- 외식업체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과 경쟁 심화인 것으로 나타남.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식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의 응답 비중은 92.3%에 달하며, 경쟁 심화(86.5%), 임차료 상승(82.6%), 인건비 상승(77.5%), 제도적 규제(7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들 항목은 전년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외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단위: %

구분	구인난 부문		영업이익 부문				
	조리(주방)	홀서빙/카운터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2022	52.0	55.9	87.9	73.7	75.3	79.3	70.8
2023	48.1	53.2	91.4	77.3	75.2	83.9	74.9
2024	54.2	60.2	92.3	82.6	77.5	86.5	75.6
등락률	6.1	7.0	0.9	5.3	2.3	2.6	0.7

주: 경영상 어려운 정도는 7단계(① 전혀 어렵지 않음→⑦ 매우 어려움) 중에서 ⑥단계 이상을 집계한 수치임.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구인난에 대한 외식업체의 어려움 정도는 조리(주방) 54.2%, 홀서빙·카운터 60.2%로, 외식업체의 과반 이상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애로사항 응답 비중이 증가하였음.
- 외식업체 가운데 향후 2년 이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할 의향은 1.6% 정도이며, 의향이 없는 업체는 84.1%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종 전환이나 폐업 의향이 있는 업체 비중이 2023년의 1.9%보다는 줄어든 수준이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비중은 전년 대비 5.9%p 증가함.

외식업체의 향후 2년 이내 업종 전환 의향

단위: %

구분	외식업 내 동종업종 전환 의향	외식업 내 타 업종 전환 의향	외식업 이외 타 산업 전환 의향	일을 아예 그만둘 예정	잘 모르겠음	기타	의향 없음
2022	0.7	0.5	0.4	2.5	11.2	0.3	84.3
2023	0.3	0.2	0.1	1.3	6.7	0.4	91.0
2024	0.4	0.6	0.6	-	-	14.3	84.1

주: 2023년까지 '일을 아예 그만둘 예정', '잘 모르겠음', '기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2024년에는 '기타'로 통합하여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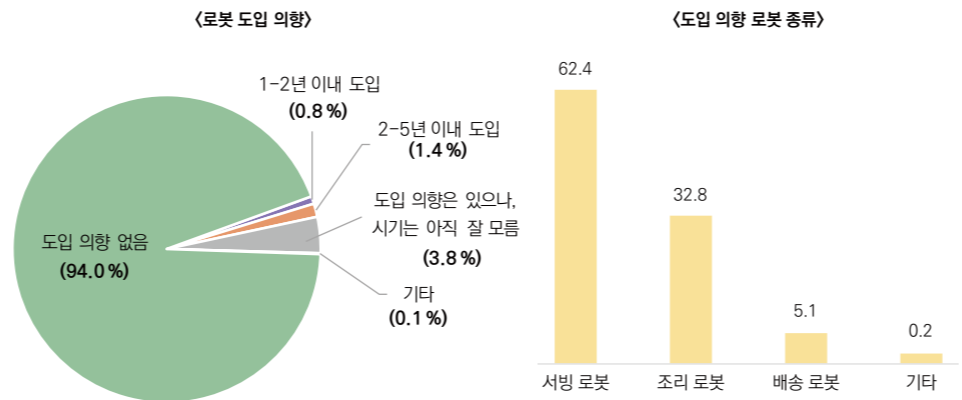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 향후 사업장 내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외식업체는 6.0%로 현재 도입된 비중 0.4%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 로봇 도입 업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로봇 도입 의향이 있는 외식업체 중 1~2년 내 도입 의향이 있는 업체 비중은 0.8%, 3~5년 이내 도입 의향이 있는 업체는 1.4%, 도입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업체가 3.8%로 나타나, 외식업체의 로봇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로봇 도입 의향이 있는 외식업체 가운데, 과반 이상은 서빙 로봇(62.1%)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며, 다음으로 조리 로봇(32.7%) 등의 순서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

단위: %



주: 도입 의향 로봇 종류는 로봇 도입 의향이 있는 외식업체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값임.
자료: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 외식업체의 2023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5.0%에서 2023년 8.9%로 하락하여 경영상황이 이전 연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식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가격 관련 정보 획득 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경쟁 심화나 제도적 규제 등으로 매출액 증가는 제한되었기 때문
- 따라서, 외식업체가 식재료를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다양한 식재료 관련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 비중은 1.9%에 그치고 있어, 외식업체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이 요구됨.
-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중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최근에는 상승 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배달앱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식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따라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과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형 배달앱 보급·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공공형 배달앱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적극적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도입 비중은 평균 12.9%, 로봇 도입은 0.4%로 나타나, 외식업계에서 푸드테크 도입 및 활성화는 아직 부진한 상황임. 그러나 무인 주문기 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로봇 도입 의향도 6.0%로 나타나 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외식업계의 특성상, 푸드테크 도입 확산은 고정비 부담을 낮추어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초기 투자 부담과 외식업에 적합한 로봇 제품이 부족하여 도입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향후 푸드테크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외식업에 적합한 로봇을 개발해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상세한 자료는 'KREI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krei.re.kr/foodInfo/index.do>)에서 찾아볼 수 있음.

저자 정보

- 박성진 연구위원(061-820-2025), seongjin20@krei.re.kr
- 최윤영 부연구위원(061-820-2359), c2y1205@krei.re.kr
- 전무경 연구원(061-820-2175), mu3618@krei.re.kr
- 김성휘 연구원(061-820-2054), seongkim@krei.re.kr